

9. 메밀의 異形現象과 受精力 및 發生學의 研究

李 萬 相

(원광대학교 농과대학)

Fagopyrum esculentum의 地方種 55 系統을 蒐集하여 봄과 여름에 播種後 開花한 다음 長, 短柱花의 分離比 또는 受精力과 大小胞子母細胞 減數分裂, 雌雄配偶體形成, 卵裝置 그리고 여름과 가을에 相互人工交配하여 受精率, 受精現象, 原胚形成 등을 比較調査하였던바 그 結果를 報告하는 바이다.

1. 같은 地方種이라도 봄에 播種하면 短柱花가 많이 出現하고 여름에 播種하면 長, 短柱花의 比率은 거의 같은 數로 된다.
2. 地方種別로는 忠北 맹동, 제원, 忠南 당진, 대덕에서 蒐集한 春播에서 短柱花가 많이 出現하였다.
3. 여름에 播種하여 開花初期에 人工授粉한것이 結實率이 第一 많아서 59.2 ~ 61.2 %이였으나, 봄에 播種한 것은 30 ~ 30.1 % 이었다.
4. 大小胞子母細胞의 發達 및 減數分裂, 配偶體形成, 卵裝置 등은 長, 短柱花 모두 正常的이었다.
5. 接移後 30 分이면 柱頭上에서 花粉이 發芽伸長하고, 1.5 ~ 2 時間이면 珠孔內에 進入하며, 2 ~ 5 時間이면 卵細胞와 精核, 極核과 精核이 受精된다.
6. 授粉後 7 ~ 8 日이면 原胚에 胚로 形成되기 시작하여 15 日이 지나면 完全한 胚를 形成한다.